지난 2004년 시작된 전남도립국악단의 토요상설공연이 300회를 돌파했다. 사진은 타악무 '태무천'과 창극 '흥보전'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그들의 흥이 있어 주말이 풍성해진다

전남도립국악단 토요상설공연 300회 맞아

전남도청이 목포에 둥지를 튼 지난 2006년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목포시민체육문화센터에서는 흥겨운 국악잔치가 펼쳐지고 있다. 전남도립국악단의 '토요상설 공연'이다.

지난 2004년 광주남도문화예술관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공휴일은 물론이고 추석·설날 등 명절에도 공연은 멈추지 않는다. 쉬지 않고 달려온 전남도립국악단 토요상설공연이 지난달 25일 300회를 맞았다.

▲전통·퓨전 어우러진 프로그램 '인기'

남도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자리잡은 토요상설공연의 매력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있다. 판소리, 민요, 가야금 병창, 살풀이, 완판 창극 등 전통과 흥겨운 타악 공연, 국악뮤지컬 등 퓨전이 어우러지면서 1시간 20분의 공연은 다채로움을 선사한다.

현재 단원은 80명. 여기에 전국에서 유일한 어린이국악단까지 합하면 단원은 140여명에 이른다. 특히 국악관현악단, 창극단 등으로 나눠진 타 지역 국악단체와 달리 창악부, 기악부, 무용부, 타악부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전남도립국악단은 단체내에서 다양한 문화상품을 만들어 내는 게 가능하다.

'어란' 등 규모가 큰 전남도립국악단의 정기공연 엑기스를 모아 수시로 공연하는 것도 토요상설공연의 매력이다.

관객들이 호응도 높다. 400석의 공연장은 매회 80~90% 관객으로 메워진다. 목포와 인근 전남지역민들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서울에서 남도 여행을 온 이들에게 토요상설공연을 꼭 거쳐가야 할 코스가 됐다. 하나투어, 홍익여행사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이 개발돼 있어 외국인을 포함, 매회 100여명의 외지인들이 신명난 국악의 맛을 보고 떠난다.

▲외지·해외 관객들 호응 높아

최근에는 공연 내용을 다시 보고 싶다는 관객들의 요구와 국악단 홍보 등을 위해 창극, 국악뮤지컬, 가야금 병창 등 공연 내용을 담은 DVD '남도풍류'를 제작했고, 매 공연 때마다 20~30장씩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국악 관련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진행되는 데 반해 전남도립국악단의 공연은 유료(5000원)로 진행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상설공연은 2008년 김만석 상임지휘자가 취임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2008년 말 목포에 단원들 연습 공간을 마련한 김지휘자는 이곳을 시민대상 '국악교실'로도 활용, 연말에는 국악교실 출신 아마추어 애호가들이 프로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공연도 진행하고 있다.

또 한달에 한번 정도는 1천300석 규모의 대극장에서 전 단원이 출연하는 대형 작품을 무대에 올려 감동을 선사한다.

그밖에 지난해에는 좀처럼 발표 무대를 갖기 어려운 전남도 지정 무형문화재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고, 올해는 '심청가', '흥보가' 등 판소리 다섯바탕을 릴레이식으로 공연하는 기획을 진행중이다.

앞으로는 22개 시군에 숨겨져 있는 토속적인 민요와 설화 등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어 색다른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김만석 지휘자는 "지금까지가 토요상설공연의 토대를 다지는 시기였다면 내년부터는 토요상설 공연을 명실상무한 문화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61-375-69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공장 앞을 지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제길씨 등 지역작가 일신방직 곳곳에 예술벽화

광주시 북구 일신방직 공장의 칙칙한 느낌을 주던 낡은 벽이 화사한 예술의 옷을 입었다. 우제길미술관은 최근 지역 작가들과 함께 247m 길이의 공장 벽 곳곳에 예술 벽화를 그려 넣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우제길·김성수·김익모·박경식·이이남·이정기씨와 미술단체인 에뽀끄회, 국제현대미술교류회 등이 참여해 과거의 밋밋한 콘크리트 공장 벽을 아름다운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씨는 화려한 컬러로 인간 내면의 희망을 담은 작품 '꿈 2010'을 선보였고, 이정기씨는 광주의 꿈을 담은 '돼지의 꿈'을 설치했다.

또 국제현대미술교류회는 '입석대 소회'와 '산'이라는 작품을 통해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형상화했으며,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김성수씨도 현대인이 일상에서 항상 접하는 바코드를 통해 무등산을 시각화했다.

이 밖에 박경식씨는 유년의 순수함을 담은 '바람개비'를, 김익모씨는 기하학적 형상의 반복과 배치를 통해 문명 사회의 반복적인 삶을 형상화한 '무제 2010'을 선보인다.

또 광엑스포 기간에 시민이 참여해 꾸민 타일 1000개를 이용해 만든 작품 '내 손으로 만드는 빛'도 이곳에 설치했다.

한편 지난 1930년대에 이곳에 터를 잡은 일신방직 공장은 광주의 현대화와 공업을 대표하는 공간이다. 문의 062-224-660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예술을 나누는 사람… 신선한 공연…

예술의 거리·금남로 일대 1~2일 광주프린지페스티벌

'흥겨운 문화 난장에서 만나요.'

아시아문화예술특화지구 사업 중의 하나인 제1회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1~2일 예술의 거리와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다.

1일 오후 6시 중앙초등학교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전야제에서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하늘을 꿈꾸는 광대-극단 '비천'의 'Mecbeth,魅惑(매혹)'이 공연된다.

2일 오프닝 공연(4시)에서는 브라질리언 타악기를 연주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브라질 삼바 타악기 그룹 '라퍼커션'이 거리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15명의 타악기 연주자들은 금남로일대와 예술의 거리를 돌며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또 중앙초 야외무대에서는 아프리카, 브라질, 캐리비아 뮤직을 바탕으로 한 5인조 밴드 '반다 악세'와 한국일렉트로닉 뮤직의 대표주자인 캐스커〈사진〉의 공연이 이어진다.

피날레 무대는 광주의 대표 전통 타악팀 '얼쑤'가 장식한다.

한편 15~17일에는 전시, 공연, 야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궁동거리 예술제'가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쾌한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광주오페라단, 오늘부터 4일간

광주오페라단(단장 김기준)이 가을을 맞아 롯시니의 대표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무대에 올린다. 1일~4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미모의 처녀 로지나에게 첫눈에 반한 젊은 귀족 알마비바 백작이 재치 있는 이발사 피가로의 도움을 얻어 사랑을 쟁취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낸 오페라다.

프랑스 희곡작가 '보마르셰'가 원작으로 피가로가 부르는 '나는 이거리의 해결사' 등 일반인들의 귀에 익숙한 경쾌한 노래가 무대를 장식한다.

주인공 알마비바 백작 역은 강동명·김호연·김진우씨가 맡았고, 상대역 로지나역으로는 박희현·이승현·김순미씨가 출연한다. 또 김치영·조재경씨가 재치가 뛰어난 피가로 역을 맡았다.

이 밖에 이호민·박홍균(바르톨로)·박병국·박승현·홍석준(바질리오)·정의영·신재희·손아름·박수연(베르타)·제갈연·정윤식(피오렐로)씨 등이 출연한다.

카메라타 플레기움(단장 이우광)이 변욱씨의 지휘로 연주를 맡았으며 광주익투스 코랄합창단(단무장 서한웅), 광주예술고등학교 무용부(안무 박점현)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연출은 제2회 대한민국오페라 대상과 연출상을 수상한 유희문씨다.

지난 1982년 창단한 광주오페라단은 이듬해 창단공연 '춘향전'을 무대에 올렸으며 이후 '토스카', '나비부인', '리골레토', '카르멘' 등 고전과 '김치' 등 창작 오페라를 선보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